



혼신의 리턴샷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가 22일 런던 아레나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월드 투어 파이널 스톱 토마스 베티치(체코)와의 경기에서 리턴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대현 볼티모어 간다

국내 활약 뒤 MLB 진출 첫 사례

올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한 투수 정대현(33)의 볼티모어 오리올스 입단이 유력시된다.

메이저리그 공식홈페이지 MLB닷컴은 볼티모어가 정대현과 22일(한국시간) 협상을 벌여 계약 조건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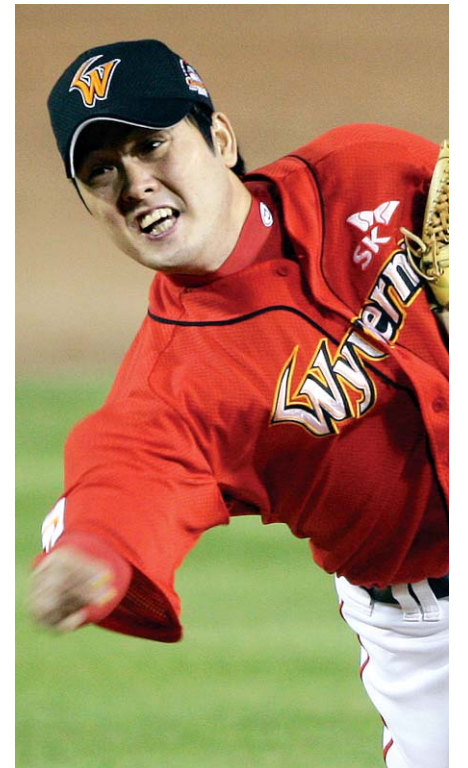
MLB닷컴은 아직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디어 테스트를 거친 뒤 공식적으로 구단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볼티모어의 맨 듀케트 부사장은 2년간 320만 달러에 사인할 것이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그러나 그는 “정대현에게 큰 관심을 두고 있다”며 협상이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했다. 미국 언론 매체들은 정대현이 메이저리그에 직행하는 조건으로 계약해 ‘40인 로스터(메이저리그 주전 선수 명단)’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듀케트 부사장은 “정대현은 통산 평균자책점이 1점대고 독특한 투구 자세를 갖췄다”며 “국제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정대현을 경기 후반 내보낼 불펜투수로 쓰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며 활용 가능한 방법을 예상하기도 했다.

올 시즌을 마치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정대현은 꿈을 좇아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해오던 와중 소속구단인 SK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지난 18일 미국으로 떠났다.

정대현은 2001년부터 SK에서 11년간 뛰면서 계투진의 핵심으로 활약하며 팀의 세



정대현

차례 우승에 이바지했고 통산 32승22패 99세이브, 평균자책점 1.93을 기록했다.

여러 차례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과 월드컵(베이스볼 클래식(WBC) 등에서 실력을 입증해 메이저리그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대현이 볼티모어와 계약하면 국내 프로 야구에서 활약한 뒤 바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첫 사례가 된다. /연합뉴스

KIA, 투수 신용운 가고 타자 이두환 온다

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 이경록·백세웅 영입

윤기두 팀장 “1군 백업 요원 아닌 미래에 투자”

‘눈물의 에이스’ 신용운(28)이 KIA 유니폼을 벗는다.

투수 신용운이 22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 육문화센터에서 열린 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에서 삼성에 지명됐다.

40인 보호 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신용운은 1라운드 8순위로 삼성의 선택을 받으면서 10년 동안 몸 담았던 KIA를 떠나게 됐다.

KIA 마운드 암흑기에 불칸의 마당쇠로 활약하며 ‘눈물의 에이스’로 불렸던 신용운은 244경기에서 3.30의 방어율로 33승21패22

세이브를 기록했다. 군복무 공백이 있었던 신용운은 올 시즌에는 어깨수술을 받으며 4경기에 출전하는 데 그쳤다.

2009년 1차 지명으로 KIA에 입단했던 광주 출신의 투수 정성철(21)도 신생팀 NC 유니폼을 입는다. 빠른 발로 주목을 받았던 신인 외야수 윤정우(23)는 LG의 지명을 받았고, 좌완 박정태(26)와 우완 우병걸(21)은 각각 삼성으로 팀을 옮기게 됐다.

KIA는 2차 드래프트에서 3명의 젊은 야수를 선택했다. 1라운드에서 두산 거포 이두환(23)을 지

명했고 삼성 외야수 이경록(22), 롯데 내야수 백세웅(19)을 2·3라운드에서 선발했다.

장충고 시절 청소년대표로 활약했던 내야수 이두환은 파워가 돋보이는 우타자로 지난해 2군 75경기에 출전해 0.362의 타율로 21개의 홈런포를 기록했다.

이경록은 185cm·91kg의 건장한 체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수·주에서 안정된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광주일고 주장 출신인 백세웅은 우투좌타로 올 시즌 롯데 4라운드 지명을 받은 신인이다. 깔끔한 송구와 포구 동작 등 수비에서 좋은 전수를 받았다.

윤기두 육성지원팀장은 “즉시 투입할 수 있는 1군 백업 요원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젊은 선수들에 대한 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 시즌 처음으로 시행된 2차 드래프트

에서는 넥센 외야수 조평호(26)가 NC로 부터 전체 1순위 지명을 받았다.

1·3라운드 우선 지명권을 행사한 NC는 조평호 외에 이재학(두산), 오정복(삼성)을 선택했고 신생팀 특별 지명으로 정성철(KIA), 윤영삼(삼성), 허준(넥센), 문현정(삼성)을 추가로 선발했다.

SK 최동수는 2차 드래프트를 통해 2년 만에 친정팀 LG로 복귀하게 됐다.

각 구단은 1라운드에서 지명된 선수의 전 소속구단에 라운드 별로 3억원, 2억원, 1억원을 보상금으로 차등 지급한다.

2차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선수가 이적을 거부하면 두 시즌을 뛰지 못하고, 구단이 지명 선수와의 계약을 포기하면 지명권은 자동 소멸된다. 보상금은 지불해야 한다. /김영기자 wool@kwangju.co.kr

LG ‘안방마님’ 조인성 SK 이적

SK투수 이승호는 롯데로

14년간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안방마님’으로 활약했던 포수 조인성(36)이 SK로 유니폼을 바꿔 입는다.

SK는 올해 자유계약선수(FA)로 풀린 조인성과 3년간 최대 19억원에 계약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조인성은 계약금 4억원과 연봉 4억원, 옵션 1억원의 조건에 도장을 찍었다. 조인성은 1998년 LG에 입단해 14시즌 동안 안방을 지키며 1483경기에 출전해 통산

타율 0.258과 1099안타, 149홈런, 647타점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에는 전 경기에 출전하면서 타율 0.317과 28홈런, 107타점을 올리며 팀의 중심 타자로도 맹활약했다. 특히 포수 최초로 100타점을 돌파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한편 롯데 자이언츠는 불칸진을 보완을 위해 이승호(30·전 SK)를 영입했다. 이승호는 4년간 계약금 6억원, 연봉 3억5000만원, 옵션 4억원 등 총 24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연합뉴스

박희영 LPGA 랭킹 58→37위 ‘경중’

1위 청야나·4위 최나연

최경주 PGA 랭킹 15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1시즌 마지막 대회인 CME그룹 타이틀홀더스에서 우승한 박희영(24·하나금융그룹)이 세계 랭킹 37위에 올랐다.

지난주 58위였던 박희영은 이번 대회 우승에 힘입어 21일 현재 37위로 경쟁 뛰었다. 박희영과 치열한 우승 경쟁을 벌인 산드라

갈(독일)은 44위에서 6계단 오른 38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청야나(대만)가 41주째 1위를 지킨 가운데 한국 선수로는 최나연(24·SK텔레콤)이 4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했다.

남자프로골프 세계 랭킹에는 루크 도널드(잉글랜드)가 여전히 1위고, 최경주(41·SK텔레콤)는 15위를 지켰다. 프레지던트컵 골프대회에서 미국의 승리를 확정 지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50위에서 51위로 한 계단 떨어졌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골프 최강자는 김하늘

올 3승에 상금왕 등 차지

최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는 시기마다 절대 강자가 있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신지애(23·미래에셋) 천하’였고, 신지애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로 진출한 뒤로는 서희경(25·하이트)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또 서희경이 지난해 3월 LPGA 투어 KIA 클래식에서 비회원 자격으로 우승한 뒤 국내외 활동을 병행하자 이보미(23·하이마트)가 상금왕, 최저 평균타수상, 올해의 선수상을 휩쓸며 최강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올해 서희경이 LPGA에 전념하고 이보미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투어 생활을 하면서 KLPGA 투어에선 대회를 마다 우승자 얼굴이 바뀌는 혼전 양상이 펼쳐졌다.

시즌 막판인 10월까지 15개 대회를 치르는 동안 2승을 거둔 선수가 한 명도 없었다. 4월 롯데마트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심현화(22·요진건설)가 시즌 초반 상금과 평균 타수, 올해의 선수 부문에



서 선수를 달리며 새 강자로 급부상했으나 이 페이스트 시즌 끝까지 이어가기에는 힘이 부쳤다.

김하늘(23·비씨

카드)는 10월 화이트 진로 챔피언십에서 이번 시즌 처음으로 2승 고지를 밟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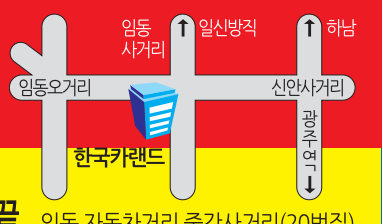
김하늘은 여세를 몰아 이달 초 이태일 리-KYJ골프 여자오픈에서도 우승, 유일하게 3승을 거둬 올해 국내 무대를 사실상 평정했다. 21일 끝난 시즌 마지막 대회인 ADT캡스 챔피언십에서 김하늘은 시즌 4승을 노렸으나 연장 접전 끝에 조영란(24·요진건설)에게 분패했다.

그러나 상금(5억2429만원), 대상 포인트, 다승(3승) 등 주요 부문을 휩쓸어 2008년 3승 이후 ‘제2의 전성기’를 활짝 열었다. /연합뉴스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일 - 루마번팅, 3M코팅, 모비스씰링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샤크안테나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용클리닝, 허부언더코팅 - 자동차경비일체, 빗대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비뒤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차기 일체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한국타이어, 글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이차기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 전국최저가 판매 - 국내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격정 끝 - 인동 자동차거리 중간사거리(20분점)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샤크안테나

도난경보기 | 이차기 | 스타트버튼

▶ 거치형 본인 네비 매립 전자종 17만원 ⇒ 12만원

▶ 아이나비K100, 3D(8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50만원

▶ 아이나비ES500, 2D(4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7만원

▶ 만도정품MD300, 2D(4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5만원

▶ 만도지니 J7, 2D(4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48만원 ⇒ 40만원

▶ 모비스폰토스 PU-7, 3D+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60만원 ⇒ 52만원

▶ 모비스폰토스 K-7, 2D+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5만원

▶ 트립형 매립차량은 상담후결정

트립 이동형 장착 모습

매립장착모델 전자종기능

만도 블랙박스 BN100

대한민국 대표 후방카메라 시그널 후방카메라

▶ 본인네비 매립 = 7만원 ⇒ 12만원

▶ 후방카메라 = 15만원 ⇒ 9만원

▶ 샤크안테나 = 10만원 ⇒ 6만원

▶ 만도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 35만원 ⇒ 30만원

▶ 모비스블랙박스 4기가 전방 = 22만원 ⇒ 19만원

▶ 모비스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 37만원 ⇒ 33만원

샤크안테나 및 통합안테나

최고 추가부품(옵션) 차량은 금액이 추가 될수 있음 *차량용 고급함수 2인원 상당 무료증정

▶ E770B 40만원

▶ E770S 43만원 / E7-B 51만원

▶ E7 37만원

▶ E7 17만원

▶ E1 7만원

▶ E2620 10~14만원

▶ EZ5500 25만원

▶ ET 17만원